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8호 [루체 제25747호] 주제106(2017)년 8월 26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  
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7돐이 되는 선군절을  
맞으며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타격  
경기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섬점  
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  
물타격경기를 지도하시  
였다.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훈련지도를 받게 된  
특수작전부대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남조선을



오는 포란들이 백령도  
와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사정없이 투를  
겨졌다.

순간 불도가니로 화한  
적진을 향하여 영웅한  
특수작전부대들의 섬점  
령전투가 개시되었다.

저 공비행하는 경수종  
기들에서 투하되어 적대  
상물들에 날새마냥 가볍  
게 착지한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과 수중으로 은  
밀히 섬에 침투한 전투  
원들은 혼비백산한 적를  
이 정신차릴 사이 없이  
물사격을 퍼부었다.

이와 동시에 고무단  
정에 오른 전투원들도  
적진에 쏜살같이 육박  
하여 기습상물을 진행  
하였다.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원쑤들의 숨통을 단호히  
끊어버릴 멀적의 각오  
안고 백두의 혼련열풍을

기어이 무력으로 깔고앉아 조국통일의  
광장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실 불타  
는 열의가 끓어넘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훈련장  
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  
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  
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북군대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북군상장 박정천동지를 비  
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맞이  
하였다.

선군절을 맞으며 조직된 이번 대상

물타격경기는 비행대와 포병, 특수작  
전부대들의 긴밀한 협동밑에 백령도  
와 대연평도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계  
획의 현실성을 확정하며 일단 유사시  
그 어떤 작전임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 특수작전군의 필승불패  
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는데 목적  
을 두었다.

대상물타격경기는 강력한 비행대,  
포병화력타격에 이어 수상, 수중, 공중  
으로 침투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을  
습격, 파괴하며 백령도, 대연평도를

가상한 섬들을 단숨에 점령하는 방법  
으로 진행되었다.

강대한 선군조선의 힘과 불변의  
의지앞에 전률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말마적발악, 화약내풍기는 침략전  
쟁왕기를 무적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야말 전체 전투원들의  
충원한 기세로 하여 훈련장은 용암마

냥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적대상물타격경기진행  
계획을 청취하시고 공격진지를 차지

한 특수작전부대들을 돌아보신 다음  
타격경기를 시작할데 대한 전투명령  
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출격  
명령을 받아안은 우리의 불은 매를  
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멀적의 비행운  
을 새기며 적목표들을 렌이어 강타  
하였다.

이어 각종 구경의 방사포, 자행평포  
사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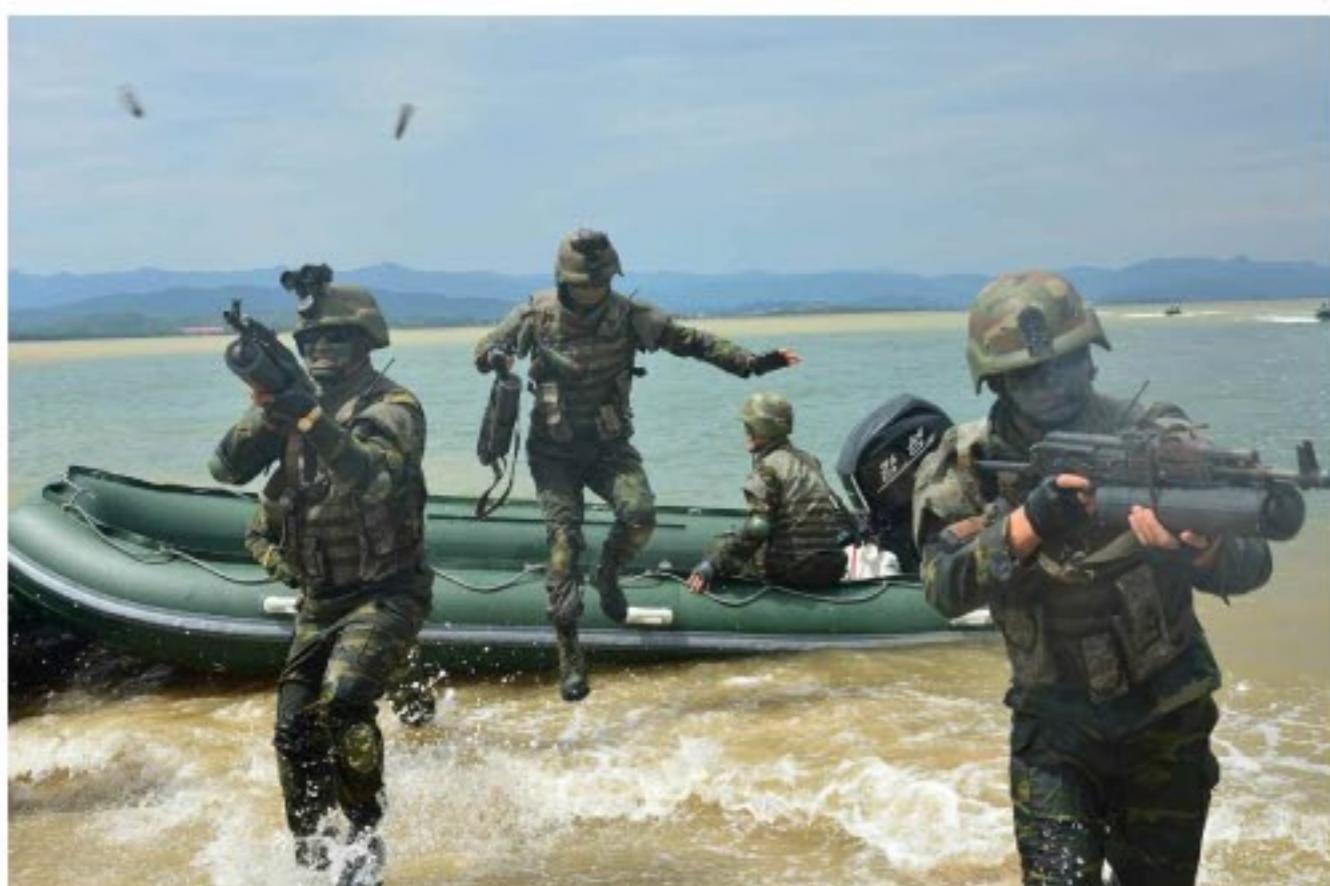
세차게 일으켜온 전투원들이 최후발악  
하는 적들을 여러가지 전투행동조법으  
로 모조리 쓸어버리였다.

콩북듯이 울리는 총성과 작렬하는  
화염으로 하여 백령도와 대연평도에  
도사리고있는 피폐 6해병려단 본부,  
연평도서방어부대 본부를 비롯한 적  
대상물들은 순식간에 불도가니속에  
잠기고 승리의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2 면 으로 계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를 지도하시였다



##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전법의 요구와 현대전의 양상에 맞게 섬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대상물 타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특수작전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싸움준비를 위한 전투정치훈련을

통하여 다지고다져온 천백배의 보복 열기로 일단 유사시에 제살구멍부터 찾으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피리군 상충부것들을 사정없이 제거해버리고야말 부대장병들의 굳은 결의를 보고울리였다.

지휘관들은 언제나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적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만단의 전투 통원준비를 갖춤으로써 적들의 《예방전쟁》, 《선택타격》기도를 우리 식

의 정의의 전면전쟁, 보다 앞선 선제타격으로 목사발만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최후승리의 보고를 제일먼저 올릴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수작전부대 장병들의 기세가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 당시의 춘련혁명방침을 받들고 전투조직과 춘련지휘를 현실성있게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 대상물 타격경기에서 잘되었다고 보는 것은 훈련에서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훈련이 다양화, 다각화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특수작전부대 안의 장병들이 훈련의 질을 풍고히 하는데 힘을 넣고 병종, 전문병 훈련과 협동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도 인민군대에서 군종,

병종 간 협동을 완성하는 실전훈련들을 많이 조직진행하여 그 어떤 형태의 작전공간과 전투양상에도 대비할 수 있게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감으로써 일단 공격명령이 내리면 원쑤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침략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격멸소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 3면으로 계속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7돐을 경축하여

## 천출명장의 위대한 선군혁명업적 천만년 길이 빛내리

### 각지에서 선군절 57돐을 뜻깊게 경축

자체 생생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짐승의 신심드높이 맨비마 대신 군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7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공민권 코나한 민족적 정지와 자부심을 안고 선군절을 맞이한 온 나라 천 만민의 가슴마음이 위대한 령도자의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홍모의 정이 차밀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구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기금수단에 암울한 광장으로 사람들의 물결이 끌없이 흘러쳐흘렀다.

정진한 마음으로 광장공원에 들어 선 군중들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계적 차이에서 학탁한 명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양상을 우리에게 삼아 인사를 흘렸다.

그들은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

을 헤치시며 나파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강력한 군사적 탈보와 강성번영의 만년도를 마련하신 불세 출의 위인들에 대한 다합없는 그리운 바

경모의 성을 안고 수령영예의 대화 으로 훌륭히 무려전 광장공원에서 시로 걸을 길을 찾았습니다.

만년대 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세습위인들의 선군혁명정신을 추구만대에 빛내여 갈

澈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라듬었다.

수도의 모린봉국장, 봉화에 출근장에서 선

군집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진행되

았다. 국립교향악단 음악회무대에는 관

현악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황제 소나례전곡』, 『7.27 행선곡』, 『전선 행렬曲』, 『교향곡 『장군님』의 테』로

영예하신다』 등에서 제2악장 『장군님 출지별 쓰신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연출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험한 길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

에 펼쳐주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 주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

사를 창고하고 정서적인 음악선율에

담아 적조노이 칭송하였다.

일제에게 두눈을 일고도 혁명의 승

리가 보인다고 해친 항일혁명투사의

로고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다.

지원봉사들을 보내왔다.

조선래원도위원회는 113인민반

에서 사는 특

령에 군인 김칠남동무에게는

수첩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그 수첩은 지난 6월 협

의 정을 암고 자기 가정을 찾

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또

박또박 적혀져있는데 그 첫장에

는 북군인보안부 아래 단위

일군인 방식철동무의 이름이

되자기에는 적극 참여하였다.

조선국제무역무역위원회 중제

원 조일밀동무도 삼지연군무리

에 참가하였지만 나날은 지

아니면 퇴근 후에

돌격대원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세신성 아래 단위로 토착인 김경

희동무는 조국과 민족의 장

막, 내성혁명가로 삶을 빛내이 드

는 능력을 인정하고 건설장

에 달려가 빠르게 훈장을 세우고

있는 녀성들 대체원들의 투쟁모습

에 향기를 풍기고 활동을 펼쳤다.

방식철동무는 그의 훈장을

받아 훈장을 수여하고 훈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칭송하였다.

당국은 김정은同志에게 높은 평가를

베풀어주고 있다.

인민봉사총국과 체육기기

제작부문에서는 25일

경기도 청년운동의 본보기로 마련

된다.

### 혁명의 성지로 달리는 뜨거운 마음

삼지연군무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운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삼지연군을 흘끗이 흘리는 사업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 정치사업을 힘있고 고리고 있다.

외무성에서는 삼지연군무리를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철데로부터로동당만세로, 사회주의만세로 소리리기 끝까지 하여야 합니다.』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삼지연군무리에 불같은 충정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다 바

쳐고 있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절구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 령도자를 따르는 신념의 길에 인생의 영광은 빛난다

- 불굴의 통일애 국투사 리인모동지의 생일 100돐을 맞으며 -

신념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가장 값들고 빛나는 삶인가.  
시대의 철학자들이 물을 앞에 서니 한 통  
일에 국투사의 반신상이 눈앞에 놓길에 어  
려온다.

절세위인들의 술에서 혁명을 알고  
위대한 태양의 둘에 앉겨 가장 값들은 영  
생의 언덕에 오른 불굴의 통일애 국투사 리  
인모동지!

그의 고집한 생은 평도자를 떠는 신념  
의 길에서 전사의 삶도 아니고 인생의 영  
광도 및 난다는 퀴즈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의

##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곧 신념이고 승리였다

사람들은 오늘도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풀속에서 5년밖에 살지 못한 리인모동지가  
어떻게 되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처럼  
가혹한 정신유적고통을 이겨내고 신  
념과 의지의 힘, 불굴의 혁명가로 영생의  
언덕에 오를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묻곤  
한다.

만사람을 경탄시킨 리인모동지의 불굴의  
삶의 원천, 그것은 다름아닌 자기 평도자를  
끌까지 밀고 따르는 두절한 혁명신념과  
의리였다.

당국의 세월 풍물의 무대산불에서 유통  
자로 떠여난 리인모동지는 아버지없는 설  
을 보았다. 나파없는 슬픔을 더 빼며 새기며 자  
라야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  
는 조선혁명군 한 투장소조가 바깥에서 온  
한국의 흥성은 축출되기도 전에 리인모동  
지의 젊음과 욕체를 푸하니 짓밟고 빼앗아  
간 27년간의 청춘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최강기수라 일컬어 온  
남아프리카의 새순 한때의 감우살이에 27년  
간 34년간의 육살이는 너무도 가혹한것이  
었다.

여기에서 15쪽 달장아래 죽음의 철강속에  
서도 두사가 신념을 버리듯 한자투자 씨내  
례간 옥종시구절이 있다.

최고체력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잊지 않으시고 생일  
100돐이 되는 지난 8월 24일 신미리에 국  
립사당에 안장된 그의 묘에 자신의 존향이  
세겨진 화환을 보내주시었다.

리인모동지가 우리곁을 떠난지도 어언  
10년.

세월은 망각의 아끼리지만 그 흐름과 더  
불어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바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토의 갑  
정, 그이에 대한 절대적믿음과 의리가 그의  
화신 리인모동지를 잊지 않으시고 생일  
100돐이 되는 지난 8월 24일 신미리에 국  
립사당에 안장된 그의 묘에 자신의 존향이  
세겨진 화환을 보내주시었다.

리인모동지가 우리곁을 떠난지도 어언  
10년.

세월은 망각의 아끼리지만 그 흐름과 더  
불어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사랑속에 통일애 국투  
사는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리 리인모동지의  
신념의 한생이 세워놓은 철리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미래란 가는 절세위인들의  
고결한

# 선군령장을 모시여 불패의 위력떨치는 강국

선군절은 전군절과 함께 우리 혁명무역 전설사와 부강조국건설사에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날이다.

역사의 이날이 있어 우리 혁명무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군본적인 전환의 일어나고 백두에서 시작된 성스러운 선군혁명역사와 전통이 즐기자 이 어이에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주체의 해 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펼치며 만민대전선에서 현수 송리의 통장문을 부르는 속에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리를 세기 57장을 열어 한 선군만민의 가슴가을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쌔워나간 불리는 경의로 끌어안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탄의 위업에 충실했던 우리 군대와 민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선군은 우리 장군님의 혁명사상, 혁명실천이었으며 정치리념, 정치방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오신 나날은 미중우의 사변들과 만난시련이 겹쌓인 준엄한 난대들이었다.

이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주도하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괴롭히 헤쳐나갔다. 언제나 조국수호의 최종방위를 최고사령부를 두고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하여 험한 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무비의 달력을 바탕, 배승의 지략과 전법으로 적들의 혁전정도달력을 걸을

마자 짓부서버리시였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춘연한 시련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자 사회주의의 강국건설의 장엄한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은 복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었다. 그 영원불멸한 업적과 대물에 우리 장군님은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오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경술되고 있다. 그는 우리 군사의 전군령장을 미친듯이 물어왔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고시는 우리 조국은 평전의 가치높이 억척같이 대진 무적의 군력을 드세한 강강공세를 들이데려와 편전련승을 이룩하였다.

『도발은 즉시적인 대응작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은 적들의 무분별한 혁전쟁으로 대체로 대체로 투자비에 걸친 전쟁비용이 사회주의조선의 불안의 선언으로 되었다.

지난 7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경적인 지도밑에 전革新 대로간단도로 하여 조선반도의 경제는 꽂임없이 혁전쟁철경으로 치달았다. 적들의 군사적 압박과 세계봉쇄책들은 그 규모와 성격,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조미대결사에서 지금처럼 조선반도정세가 국도에 달하고 군사작충들과 전쟁 위험이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것은 일찍이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군의 보건으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정책을 살살이 거부하면서였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특성과 우리 혁명발전의 핵심직적요구, 세계정치정세의 변화발전추세에 예의회히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경제건설과 박무역건설의 병진으로 선을 제시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실현 위한 투쟁에 이고시며 활은 기간에 우리 공화국을 철학무적의 위장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짙은 밤, 이른새벽 가필없이 화선에 안

재나 전隼사들과 함께 세시며 고생도 시험

도 달계 나누시고 신변의 위험끼니 아왕

포없이 전략무기개발의 전파정을 진두지휘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 불휴의 료고가 있어 주체적인 혁무역건설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

파들이 떠나고 이룩되었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이 명우에 혁전쟁의 불구름을 미친듯이 물어왔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고시는 우리 조국은 평전의 가치높이 억척같이 대진 무적의 군력을 드세한 강강공세를 들이데려와 편전련승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의 보건으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은인이다. 최근년간 사회주의조선을 기어도 알살하는 미제의 국악한 반공화국압살정책 등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경제는 꽂임없이 혁전쟁철경으로 치달았다. 적들의 군사적 압박과 세계봉쇄책들은 그 규모와 성격,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조미대결사에서 지금처럼 조선반도정세가 국도에 달하고 군사작충들과 전쟁 위험이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것은 일찍이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군의 보건으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정책을 살살이 거부하면서였다. 조선반도의 지정학적특성과 우리 혁명발전의 핵심직적요구, 세계정치정세의 변화발전추세에 예의회히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경제건설과 박무역건설의 병진으로 선을 제시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실현 위한 투쟁에 이고시며 활은 기간에 우리 공화국을 철학무적의 위장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짙은 밤, 이른새벽 가필없이 화선에 안

재나 전隼사들과 함께 세시며 고생도 시험

도 달계 나누시고 신변의 위험끼니 아왕

강군으로 창설강화되었고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을 호도되며 다스리는 정의의 보루로 거기연 솟아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의 담락파 배방, 친려해안의 예지와 닥월한 명도로 선군령장의 봉기장을 열려갈이 다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평에는 혁전쟁의 삼파가 암백번도 더 둘워워울것이다. 각종 스러운 미국의 혁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계제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천만민민대를 확고히 담보하는 일을 익숙한 혁전쟁체력을 미쁘해놓으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선군령장은 이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복세출의 업적은 결코 결단과 밝고 달것이다.

이 땅에 펼쳐지는 각동적인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후원들의 제제와 불세, 암박을 끊어치며 어떻게 무섭게 푸쳐오르는가를 깊이 알도록 하여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피씨들이 『유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대로 청진경찰을 수호해나가시는 것은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리우기 위한 한갓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혁명무역은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축축밀사일 멀적의 시각간을 헤쳐나가고 있다. 물론 불로 드리스러우며 우리를 조급이라도 건드리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수호의 자비도 모르는 빠두산혁명군의 무작위승의 기상이 천만의 충경마다 헤쳐나가고 있다. 그것은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리우기 위한 한갓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혁명무역은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축축밀사일 멀적의 시각간을 헤쳐나가고 있다. 물론 불로 드리스러우며 우리를 조급이라도 건드리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수호의 자비도 모르는 빠두산혁명군의 무작위승의 기상이 천만의 충경마다 헤쳐나가고 있다. 그것은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리우기 위한 한갓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피씨들이 『동동』을 울가미에 듣는히 업어놓고 북침전쟁의 흙적대, 풍랑일이로써 벼여먹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흥심이다. 이로부터 미국의 혁전쟁총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긴장할 때에는 물론 완화의 기미가 보일 때에도 남조선에 편집나거나 드나들며 피씨들의 북침전쟁준비상태에 걸친 고개를 끊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공화국은 주체의 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대세의 우세를 판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힘의 기운으로 민족이 처럼 품수없이 끌어내리는 피씨들이 아말로 거칠수 있는 그야말로 일축족발의 초기장상에 처해있다.

미국이 일방적인 혁위협을 가하면 시대는 영원히 풍랑장이다.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제빵은 안전하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는 날은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국이 군부우두머리들을 날조선에 굽과하고 청진경찰을 강제로 헤쳐나가고 있다.

미국이 있어서 비정성적인 사고와 행동만이 운명의 문초를 두둔하는 고단은 시간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은 미련한 도발적망동이 저들의 쇠발로 만을 풀여하고 불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옮바른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미련한 도발적망동에 대한 경고를 드렸다.

미국은 미련